

때까지 관찰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을 기획하여 검사한 것입니다.

□ 식약청은 식용타르색소의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2006년에는 음료·사탕·빙과류·과자류 등 704건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 9품목의 실제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설정한 일일섭취허용량의 0.01%부터 16.4%까지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일일섭취허용량 :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양으로 국제기구인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설정

○ 2007년에는 2006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용 빈도가 높은 식용 타르색소 5품목의 혼합 섭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식용색소청색1호 실제섭취량의 1,000배를 투여한 쥐의 신경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 2008년에는 2007년도에 제기된 식용색소청색1호의 신경계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청색1호에 적색2호, 적색40호, 황색4호 및 황색5호를 각각 혼합하여 실제섭취량의 10배, 100배, 1,000배를 실험쥐에 투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식약청은 식용타르색소는 단일색소의 경우 JECFA(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2종류의 식용타르색소를 함께 투여한 동물에 대한 독성 연구사례가 없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앞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회의 참석 및 개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에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주요 11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 개

진하고,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제주에서 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식품 교역 시 공정한 무역행위를 확립하고자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관련 법령 제정을 목적으로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한 정부간 기구로 현재 183개국과 유럽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주요 CODEX 회의 결과로는,

-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CODEX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를 금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하여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위해분석 지침’을 협의하여 내년 총회에서 규격안으로 확정하고, 2011년에 최종 규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 동 지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식품 중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미생물이 인체에 미칠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국가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용됨.

- 또한, 2006년 “제29차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회의”에서 영양표시를 위한 ‘영양소 기준치 설정’ 주도로 결정된 이후 초안 채택, 대면회의(Physical Working Group) 의장국 역할, 규격안 확정 등 영양 기준 국제화에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최종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하기 위해 2010년도에도 국내·외 협력국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와 활발한 논의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제기준 설립 국가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임.

- 식약청은 세계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내 식품안전기준 등을 국제 규격과 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선진화 및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700여개 유통매장에서 위해상품 완전히 걸러낸다

멜라민 과자, 중금속 함유 장난감과 같은 위해상품을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걸러내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전국 8,771개 매장에 구축됨에 따라, 매일

5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위해상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